

《醫學入門·臟腑條分》肝臟에 작용하는 藥物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Medicines Effected on the Liver in the 'Bowel-Viscus Classification' of An Introduction to Medical Science

임양순, 금경수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정보학과

Abstract

A study on the Medicines Effected on the Liver in the 'Bowel-Viscus Classification' of An Introduction to Medical Science

Yang-sun Lim, Kyung-Soo Keum

Dept.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

In this dissertation, I will focus on the channel entry, the effect, and the treatment throughout books of oriental medicine from ancient to modern in order to classify the medicines of the liver as main or supplementary org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kinds of the medicines of working of the liver(本臟) were 29, which were Amydae carapax (鱉甲), Chrysanthemi Flos(菊花), Cassiae Torae Semen(草決明), Plantaginis Semen(車前子), Scirpi Seu Sparganii(三稜), Ulmi Pasta Semen(蕪荑), Cinnamomi Cortex(肉桂), Fraxini Cortex(秦皮), Chaenomelis Fructus(木果), Corii Asini Colla(阿膠), Chuanxiong Rhizoma(川芎), Adenophorae Radix(沙參), Coicis Semen(薏苡仁), Acanthopanax Cortex(五加皮), Zizyphi Spinosae Semen(酸棗仁), Picrorrhizae Rhizoma(胡黃連), Gentianae Radix(草龍膽), Citri Reticulatae Viridie Pericarpium(青皮), Paeoniae Alba Radix(白芍藥)-Paeoniae Rubra Radix(赤芍藥), Bupleuri Radix(柴胡), Peucedani Radix(前胡), Naturalis Indigo(靑黛), Citrus unshiu(橘葉), Rhinocerotis Cornu(犀角), Aucklandiae Radix(木香), Polygonati Odorati Rhizoma(萎蕤), Farfarae Flos(款冬花), Evodiae Fructus(吳茱萸), Citri Reticulatae Pericarpium(陳皮) .
2. The kinds of the medicines of working of other viscera(他臟) were 7, which were Astragali Radix(黃耆), Ginseng Radix(人蔘), pinelliae Rhizoma(半夏), Myristicae Semen(肉豆蔻), Euryales Semen(芡實), Arecae Semen(檳榔), Piperis Longi Fructus(萹撥).
3. Medicines, effected on the heart functioned through any other viscera are as follows:
Arecae Semen(檳榔) works to treat Spleen Qi Entering the Liver(脾氣入肝), Piperis Longi Fructus(萹撥), pinelliae Rhizoma(半夏), Euryales Semen(芡實) and Myristicae Semen(肉豆蔻) operate to treat Spleen Cold Entering the Liver(脾冷入肝), Astragali Radix(黃耆) and Ginseng Radix(人蔘) work to treat Spleen Vacuity Entering the Liver(脾虛入肝).

肝의 生理機能은 “肝藏血· 肝主疏泄· 肝主

In the study of concerning the medicines effected on the liver, It is considered that it dedicated to development of the medicines related to the disease of the liver and making efficient use of the medicines.

Keywords : Liver, Bowel-Viscus Classification, Introduction to Medical Science

筋· 肝開竅於目· 其華在爪”⁵⁾등으로 이러한 生

I. 緒論

肝은 將軍之官이니 智謀와 思慮가 나온다. 피로를 이기는 根本이며, 魂이 거하는 곳¹⁾이며 人體의 중요한 臟器 중의 하나로서 本性은 剛急하고 好動하는 것이 특징²⁾이다.

한편 位置와 形態에 관한 설명으로 “肝은 횡격막 아래에서부터 우측엿구리 肋骨에 붙어있고 위로는 橫膈膜을 관통하여 肺 속으로 들어가 있어 膈膜과 더불어 붙어 있다. 肝의 무게는 4근 4兩이며 2개의 큰 잎과 1개의 작은 잎이 있고, 左三右四로 합쳐 7엽이라 양쪽으로 나뉘어져 마치 나무가 싹이 터서 잎이 많아지게 되는 것과 같다.”³⁾고 하였다.

肝의 經脈은 “陰器를 돌아서 少腹을 지나 胃를 끼고 올라가 肝에 屬하고 膽에 絡하며, 다시 膈을 뚫고 올라가서는 脇肋과 兩乳에 分布하며 위로는 目系와 이어지면서 肝과 膽이 表裏의 關係를 이루기 때문에 이 部位에서 발생하는 病證들은 모두가 肝經의 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⁴⁾고 하였다.

理 機能이 失常되면 “肝氣鬱結, 肝火上炎, 肝膽濕熱, 寒滯肝脈, 肝風內動, 肝血虛, 肝陰虛, 陰虛陽亢”⁶⁾등의 病證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臟腑에 疾病이 發生하는 그 病이 다른 臟腑의 疾病에 의한 것이 아니면 病이 發生한 臟腑를 直接 治療하는 方法을 쓴다⁷⁾고 하였다.

《靈樞本輸篇》에서는 “肺合大腸, 心合小腸, 肝合膽, 脾合胃...”⁸⁾이라 하였고, 《素問通評虛實論》에서 “五臟이 고르지 못한 것은 六腑가 막혔기 때문이다.”⁹⁾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어느 한 臟腑에 疾病이 發生하면 곧 다른 各 臟腑에 影響을 미치게 되고, 다른 各 臟腑의 정상적인 生理機能에 變化가 發生하게 되면 다시 원래 疾病이 發生한 臟腑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人體는 有機的인 整體로서 各 臟腑는 서로 關係하며 影響을 준다¹⁰⁾는 것을 알 수 있다.

1) 李樾,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 권 p.429,430
2)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139
3) 李樾,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 권 p.429~432
4)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139

5)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140
6)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154
7) 申天浩, 문답식 한의학개론, 서울, 전통의학연구소, 1993, p.244
8)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44
9)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44
10) 申天浩, 문답식 한의학개론, 서울, 전통의학연구소, 1993, p.244

藥物治療¹¹⁾에 있어서도 五臟六腑의 相關關係¹²⁾¹³⁾로 보아 病이 發生한 臟腑에 우선적으로 藥物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各 臟腑에 作用하는 藥物이 다시 원래 疾病이 發生한 本臟을 治療하는 藥物로 使用할 수 있음을 類推할 수 있다.

《醫學入門臟腑條分》의 肝臟部 藥物은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는 治肝藥이 아닌데도 肝臟部 藥物로 일부 配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著者は 臨床에서 肝臟病에 關聯된 藥物의 活用範圍를 넓히기 위해 他臟器에 作用하여 肝臟에 影響을 미치는 藥物을 分析하고자 古典과 現代에 이르는 本草書의 歸經·效能·主治, 臟腑의 生理·病理機轉를 比較 考察한 결과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및 研究對象

본 研究에서는 《醫學入門臟腑條分》의 肝臟에 作用하는 藥物을 調査하였다.

2.1 研究方法

1. 《醫學入門臟腑條分》의 肝臟에 作用하는 藥物을 調査하기 위해 관련 書籍 分析 및 先行 研究를 살펴봤다.

2. 《醫學入門臟腑條分》의 肝臟藥物을 本臟에 作用하는 藥物과 他臟에 作用하는 藥物로 구분하기 위해 本草求真·中藥大辭典·申氏本草學으로 調査하여 比較·分析하였다.

3. 本臟에 作用한 藥物과 他臟에 作用한 藥物로 區分된 效能·主治는 國內·外에서 發刊된 歷代 重要本草書籍을 中心으로 調査·分析하였다.

4. 本論·考察 중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引用文獻에 대한 說明과 原文은 脚註로 處理하였다.

5. 本 論文에 使用한 부호는 引用文獻은 《 》, 字句解는 단어와 각주로, 脚注는 ¹⁾로 표시하였다.

6. 強調해야 할 文句가 句인 경우에는 ‘ ’로 強調하였고 節인 경우는 “ ”로 強調하였다.

2.2 研究對象

《醫學入門臟腑條分》의 肝臟에 作用하는 藥物¹⁴⁾

涼以 蠶甲 菊花

草決明 車前子 三稜 蕪荑

溫則 木香 肉桂 半夏

肉荳蔻 陳皮 檳榔 葶撥

瀉以 青皮 芍藥 柴胡

前胡 青黛 橘葉 犀角 萎蕤 款冬花 吳茱萸 秦皮

補則 木瓜 阿膠

川芎 黃芪 人蔘 沙蔘 薏苡仁 五加皮 酸棗仁 芡實 胡黃連 草龍膽

肝臟條分の 原文에 配屬된 藥物은 총10종으로 涼藥 2종(蠶甲·菊花), 溫藥 3종(木香·肉桂·半夏), 瀉藥 3종(青皮·芍藥·柴胡), 補藥 2종(木瓜·阿膠)이며, 註解(編籌藥性)에 配屬된 藥物은 총26종으로 涼藥 4종(草決明·車前子·三稜·蕪荑), 溫藥 4종(肉荳蔻·陳皮·檳榔·葶撥), 瀉藥 8종(前胡·青黛·橘葉·犀角·萎蕤·款冬花·吳茱萸·秦皮), 補藥 10종(川芎·黃芪·人蔘·沙蔘·薏苡仁·五加皮·酸棗仁·芡實·胡黃連·草龍膽)이다. 以上 研究대상 藥物은 총 36종이다.

11) 金完熙,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124,136

12) 허준, 대역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301

13) 金完熙,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41~44

14) 李槤,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 권 p.436

III. 本論

臟腑條分の 心臟藥物를 參考文獻 <표1>의 歸經을 基準으로 本臟에 作用하는 藥物 <표2>과 他臟에 作用하는 藥物 <표3>로 區分하면 다음과 같다.

<표1> 本臟에 作用한 藥物과 他臟에 作用한 藥物로 區分하기 위해 參考한 書籍

서적명	저자	출판사	지역	년도
本草求真 (원광대학교 21기)	黃官繡	木과 土	서울	1999
中藥大辭典	南京中醫學院	新文豐出版公司	北京	1971
申氏本草學	申佶求	高文社	서울	1988

〈표2〉 本臟에 作用하는 藥物 (29種)

本臟 藥物		本草求眞	中醫學大辭典	申氏本草學	臟	腑	備考
補藥	1	木瓜 專脾 肺 兼肝	肝 脾	脾胃 肺 肝	肝3 脾3 肺2	胃1	
	2	阿膠 專肝 兼肺 腎 心	肺 肝 腎	肺 肝 腎 心	肝3 肺3 腎3 心2		
	3	川芎 專肝 兼心包 膽	肝 膽	肝 脾 心 膽 三焦	肝3 脾1 心1	膽3 心包1 三焦1	
	4	沙蔘 專肺	肺 肝	脾 肺 腎	肺3 肝1 脾1 腎1		
	5	薏苡仁 專肺 脾胃	脾 肺 腎	肺 脾胃 肝 大腸	肺3 脾3 腎1 肝1	胃2 大腸1	
	6	五加皮 專肝 腎	肝 腎	肺 肝 腎	肝3 腎3 肺1		
	7	酸棗仁 專肝 膽 兼脾	心 脾 肝 膽	心 脾 肝 膽	肝3 脾3 心2	膽3	
	8	胡黃連 專臟腑骨髓	肝 胃 大腸	肺 胃 肝 膽	肝2 肺1 장	胃2 膽1 大腸1 骨髓	
	9	草龍膽 專肝 膽 兼膀胱 腎	肝 膽	肝 膽 胃 膀胱 腎	肝3 腎2	膽3 膀胱2 胃1	
瀉藥	1	青皮 專肝	肝 膽	肝 膽 三焦	肝3	膽2 三焦1	
	2	芍藥 白芍-專肝 赤芍-專肝	白芍: 肝 脾 赤芍: 肝 脾	白芍: 肺 肝 脾 赤芍: 肺 肝 脾 小腸	白芍: 肝3 脾2 肺1 赤芍: 肝3 脾2 肺1	赤芍: 小腸1	
	3	柴胡 專膽	肝 膽	肝 膽 心包 三焦 胃 大腸	肝2	膽3 心包1 三焦1 胃1 大腸1	
	4	前胡 專肝膽	肺 脾	肺 脾 胃 肝 膽 大腸 三焦 膀胱	肝2 脾2 肺2	膽2 胃1 大腸1 三焦1 膀胱1	
	5	青黛 專肝	肝 肺 胃	肝	肝3 肺1	胃1	
	6	橘葉 x	足厥陰肝經氣分	x	肝1		
	7	犀角 專胃 兼心	心 肝	心 肝 胃	心3 肝2	胃2	
	8	萎蕤 專肺 兼肝 脾 腎	脾 肺 腎	心 肺	肺3 腎2 脾2 肝1 心1		
	9	款冬花 專肺	肺	肺 肝	肺3 肝1		
	10	吳茱萸 專肝 兼脾 胃 腎 膀胱	肝 胃	肝 腎 脾 胃 膀胱	肝3 脾2 腎2	胃3 膀胱2	
	11	秦皮 專肝 膽 腎	肝 膽	肝 膽 腎	肝3 腎2	膽3	
涼藥	1	鱉甲 專肝	肝 脾	肝 肺 脾	肝3 脾2 肺1		
	2	菊花 專肝 肺 腎	肺 肝	心 肝 脾 肺 胃 膽 大腸 小腸	肝3 肺3 腎1 心1 脾1	胃1 膽1 大腸1 小腸1	
	3	草決明 專肝	肝 腎	肺 膽 腎	肝2 腎2 肺1	膽1	
	4	車前子 專肝 肺	腎 膀胱	肺 脾 肝 腎 小腸 膀胱	肝2 肺2 腎2 脾1	膀胱2 小腸1	
	5	三陵 專肝	肝 脾	肺 肝 脾	肝3 脾2 肺1		
	6	蕪荑 專脾 兼肝	脾 胃	x	脾2 肝1	胃1	
溫藥	1	木香 專肝 脾	肺 肝 脾	三焦 肺 脾 肝	肝3 脾3 肺2	三焦1	
	2	肉桂 專命門 肝	腎 脾 膀胱	脾 心 腎 肝 命門	肝2 腎2 脾2 心1	命門2 膀胱1	
	3	陳皮 專脾 肺 兼大腸	脾 肺	肺 肝 脾 胃	脾3 肺3 肝1	大腸1 胃1	

〈표3〉 他臟에 作用하는 藥物 (7종)

本臟 藥物			本草求真	中醫學大辭典	申氏本草學	臟	腑	備考
補藥	1	黃芪	專肺 兼脾	肺 脾	肺 脾 腎 大腸 三焦	肺3 脾3 腎1	大腸1 三焦1	
	2	人蔘	專肺 兼脾	脾 肺	肺 脾 胃 腎	肺3 脾3 腎1	胃1	
	3	芡實	專脾腎	脾 腎	脾 胃 心 肝 腎	脾3 腎3 心1 肝1	胃1	
溫藥	1	半夏	專脾 胃 膽 兼心	脾 胃	脾 胃 膽 心 肺 大腸	脾3 心2 肺1	胃3 膽2 大腸1	
	2	肉豆蔻	專脾胃 兼大腸	脾 大腸	脾 胃 大腸	脾3	大腸3 胃2	
	3	檳榔	專腸胃	脾 胃 大腸	胃 大腸	脾1	胃3 大腸2	
	4	葷撥	專胃 兼脾 膀胱	脾 胃	胃 脾 大腸 膀胱	脾3	胃3 膀胱2 大腸1	

3.1 本臟에 作用하는 藥物

1. 補藥

1) 木瓜

木瓜의 歸經은 ‘肝·脾·肺·胃’¹⁵⁾이다.

《本草求真》에 “轉筋을 치료하는데 筋을 益하는 것이 아닌 脾를 調理하고 肝을 伐하는 것이다.”¹⁶⁾고 하였다.

《申氏本草學》에 “味가 酸하여 肝木의 木氣를 얻고 肝에 入하여 血分의 澁藥이 된다. 대개 筋의 不舒와 氣의 不固는 모두 濕熱로 인한 것이다. 酸澁이 斂熱水濕하여 주로 舒筋固氣의 良品이다.”¹⁷⁾고 하였다.

《本草正義》에 “酸이 收斂작용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酸은 筋에 잘 들고 收斂작용을 하여 脫을 굳어지게 하는 효능이 있고 나무의 精氣를 얻었다. 이 때문에 오로지 肝에 들어가서 근육을 돕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킨다. 허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증상, 脚氣를 치료할 때 引經藥으로

써 불가결하고 氣滯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氣脫을 굳게 할 수 있다.”¹⁸⁾고 하였다.

2) 阿膠

阿膠의 歸經은 ‘肝·肺·腎·心’¹⁹⁾이다.

《本草求真》에 “氣味が 모두 陰의으로 肝經으로 들어가서 血을 기른다.”²⁰⁾고 하였다.

《申氏本草學》에 “味甘氣平하고 質이 潤하여 오로지 肝經에 入하여 養血한다.”²¹⁾고 하였다.

《神農本草經疏》에 “여자의 하혈, 腹內崩, 虛勞가 심해서 생기는 말라리아와 같은 寒氣, 腰腹痛, 肢疝痛, 胎不安 및 복부 疼痛, 만성 虛勞羸瘦, 陰氣 부족, 다리가 피곤해서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증세를 다스린다. 이것들은 모두 精血의 虛와 肝腎不足에 의한 것이고 치료 방법은 補肝益血이다.”²²⁾고 하였다.

18) 宛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3권 p.1693

本草正義 : 木瓜, 用此者用其酸斂, 酸能走筋, 斂能固脫, 得木味之正. 故尤專入肝益筋走血. 療腰膝無力, 脚氣, 引經所不可缺. 氣滯能和. 氣脫能固. ……

19) 本草求真 : ‘專肝 兼肺 腎 心’, 中藥大辭典 : ‘肺·肝·腎’, 申氏本草學 : ‘肺·肝·腎·心’

20) 원광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68

阿膠 專入肝 兼入肺腎心 味甘氣平 質潤 專入肝經養血 ……

21)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144

22) 宛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6권 p.3462

神農本草經疏 : 阿膠, 主女子下血, 腹內崩, 勞極瀉瀉如瘧狀, 腰腹痛, 四肢酸疼, 胎不安及丈夫少腹痛, 虛勞羸瘦, 陰氣不足, 脚酸不能久立等證, 皆由於精血虛, 肝腎不足, 法當補肝益血.

15) 本草求真 : ‘專入脾 肺 兼入肝’, 中藥大辭典 : ‘肝·脾’, 申氏本草學 : ‘脾·胃·肺·肝’

16) 원광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199

木瓜 專入脾肺 兼入肝 …… 復于耗損可斂. 時珍曰 木瓜所主吐利轉筋脚氣 本皆脾胃 固非肝病也 肝雖主筋 而轉筋則有濕熱寒濕之邪襲傷脾胃所致 故轉筋必起于足腓 腓乃宗筋 皆屬陽明 木瓜治轉筋 脾益筋也 理脾而伐肝也 …… 而金受蔭矣

17)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194

3) 川芎

川芎의 歸經은 ‘肝·脾·心·膽·心包·三焦’²³⁾이다.

《本草求真》에 “肝에 있어 風鬱로 인하여 腹痛, 脇痛, 血痢, 寒痺筋攣, 目淚, 癰疽의 一切 病證을 치료할 수 있다.”²⁴⁾ 고 하였다.

《申氏本草學》에 “性이 升하고 功이 오로지 和血通肝하여 補血潤燥 行氣搜風의 藥이 된다.”²⁵⁾ 고 하였다.

王好古는 “肝氣의 순환을 조절하고 肝血을 보양하며 肝燥를 축축하게 하고 風虛를 보양한다.”²⁶⁾고 하였다.

《本草綱目》에 “血中の 氣藥이다. 肝의 苦急은 辛으로 보양하기 때문에 血이 虛한 사람에게 좋다. 辛으로 그것을 흠어지게 하므로 氣가 鬱結된 증상에 좋다.”²⁷⁾고 하였다.

4) 沙蔘

沙蔘의 歸經은 ‘肺·肝·脾·腎’²⁸⁾이다.

《醫學入門》에 “散血·分積·養肝하는 功效가 많은 것이니 항상 잠을 자려고 하며 多驚 多煩등이 있는 患者에 가장 마땅하므로 厥陰의 本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²⁹⁾ 고 하였다.

《臨床本草學》에 “滋陰작용을 빌려 肝腎陰虛, 血燥氣鬱로 인한 胸脇脇痛, 吞酸吐苦, 咽乾口燥, 血紅少津 등의 병증에도 응용할 수 있다.”³⁰⁾고 하였다.

《申氏本草學》에 “肺金이 清하므로 肝을 剋하지 않고 肝氣가 養을 얻고 血積驚煩·心腹結熱에 쓰면 能히 陰血을 益하고 邪氣가 自寧한다.”³¹⁾고 하였다.

5) 薏苡仁

薏苡仁의 歸經은 ‘肺·脾·腎·肝·胃·大腸’³²⁾이다.

《神農本草經》에 “筋肉의 갑작스런 痙攣, 屈伸不能, 風濕性 痲痺를 치료하며 위로 치밀어 오르는 氣를 내린다.”³³⁾고 하였다.

《醫學入門》에 “風濕痺를 제거하며 筋攣骨痛하여 屈伸하기 어려운 것을 치료한다.”³⁴⁾고 하였다.

《本草綱目》에 “筋骨의 병은 陽明을 치료하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筋肉의 急性 痙攣, 風痺에 쓴다. 土는 水를 이기고 除濕하기 때문에 泄利 수중에 쓴다. 古方의 小續命湯의 注에서 말하기를 中風으로 인한 急性 筋肉 痙攣으로 말이 늦고 脈

p.315

沙蔘 性寒甘苦味.能除表熱與胃痺.卒疝惡瘡身浮痒.散血積兮補陰氣.

生沙地,葉似枸杞,根如葵,筋大外赤黃內白,亦名白蔘,出華州者良.無毒.主肌表間熱,頭痛寒熱,胃痺心腹痛結熱,卒得疝氣下墜絞痛,一切惡瘡疥癬,浮風身痒,散血分積,養肝之功居多,常欲眠而多驚煩者最宜,故曰:厥陰本藥也.兼瀉肺熱,能補五臟之陰,亦隨各臟引至.易老常以此代人參,取其甘也.

30)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7, p.273

31) 申信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122

32) 本草求真 : 專肺 脾 胃, 中藥大辭典 : 脾·肺·腎, 申氏本草學 : 肺·脾·腎·肝·大腸

33)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7권 p.4421

神農本草經 : 主筋及拘攣, 不可屈伸, 風濕痺, 下氣.

34) 李梴,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I-上권 p.513

薏苡仁 甘寒除風濕 筋攣骨痛難伸屈 消腫利腸除肺痿 令人能食性不急

.....

23) 本草求真 : ‘專肝 兼心包 膽’, 中藥大辭典 : ‘肝·膽’, 申氏本草學 : ‘肝·脾·心·膽·三焦’

24) 원광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243

芎藭 專入肝 兼入心包 膽 辛溫升浮 爲肝膽心包血分氣藥 故凡 肝因風鬱 而見腹痛 脇痛 血痢 寒痺筋攣 目淚及癰疽一切等證 治皆能痊

25) 申信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600

26)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9권 p.5261

王好古 : 搜肝氣, 補肝血, 潤肝燥, 補風虛.

27)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9권 p.5263

本草綱目 : 芎歸, 血中氣藥也, 肝苦急以辛補之, 故血虛者宜之; 辛以散之, 故氣鬱者宜之.

28) 本草求真 : 專肺, 中藥大辭典 : 肺·肝, 申氏本草學 : 脾·肺·腎

29) 李梴,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I-上권

이 弦하면 薏苡仁을 加한다고 하는데 이는 扶脾 抑肝하는 뜻이다.”³⁵⁾고 하였다.

6) 五加皮

五加皮의 歸經은 ‘肝·腎·肺’³⁶⁾이다.

《本草綱目》에 “風濕으로 인한 痿痺를 치료하며 筋骨을 强하게 한다.”³⁷⁾고 하였다.

《神農本草經疏》에 “五加皮로 치료한 여러 증상은 모두 風寒濕邪가 2經(足少陰·厥陰)에 損傷을 준 데서 起因한 병이다. 그 중에서도 습기에 起因한 증상이 많다. 肝腎은 下焦에 위치하여 筋骨을 관장하므로 風寒濕의 邪氣는 대부분 이 2經이 먼저 入하게 된다.”³⁸⁾고 하였다.

《醫學入門》에 “風痺로 痿急하며 行步가 어려운 것을 치료한다. 또한 心腹의 疝氣痛과 前陰(生殖器)의 濕이 甚하여 축축한 것을 치료한다.”³⁹⁾고 하였다.

7) 酸棗仁

酸棗仁의 歸經은 ‘肝·脾·心·膽’⁴⁰⁾이다.

《本草求真》에 “生하면 虛熱을 이끌어주어 肝

熱好眠을 치료한다. 고 하였으며 같은 책에 傷寒의 虛煩多汗과 급한 虛人盜汗에 모두 炒熟하여 肝脾의 津液을 收斂하는 것을 취한다.”⁴¹⁾고 하였다.

《藥品化義》에 “香溫으로 肝·膽을 溫하게 할 수 있다. 膽虛로 血이 적고 心煩不眠인 경우에 이것으로 肝·膽의 血을 충족하게 하면 五臟이 安和하게 되고 宿면을 取할 수 있다.”⁴²⁾고 하였다.

《本草綱目》에 “甘하고 潤하기에 익은 것을 쓰면 膽虛不眠, 煩渴虛汗을 치료하고 生것을 쓰면 膽熱로 인한 嗜眠을 다스린다. 모두 足厥陰·小陽의 藥이다.”⁴³⁾고 하였다.

8) 胡黃連

胡黃連의 歸經은 ‘肝·肺·胃·膽·大腸’⁴⁴⁾이다.

《唐本草》에 “骨蒸勞熱을 다스리고 肝·膽을 보양하며 눈을 밝게 한다.”⁴⁵⁾고 하였다.

《本經逢原》에 “苦寒이고 降이므로 臟腑骨髓의 邪熱을 잘 除去하며 婦人의 胎蒸과 小兒의 疳熱積氣를 除하는 峻藥이다. 이는 肝·腎의 邪熱을 除去하는 效能에 의한 것이다.”⁴⁶⁾고 하였다.

35)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7권 p.4422
本草綱目 : 薏苡仁陽明藥也, …… 筋骨之病, 以治陽明爲本, 故拘攣筋急, 風痺者用之. 土能勝水除濕, 故泄痢水腫用之. 按古方小續命湯注云; 中風筋急拘攣, 語遲, 脈弦者, 加薏苡仁, 赤扶脾抑肝之義.

36) 本草求真 : 專肝 腎, 中藥大辭典 : 肝腎, 申氏本草學 : 肺·肝·腎

37)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7권 p.3912
本草綱目 : 治風濕痿痺, 壯筋骨.

38)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7권 p.3913
神農本草經疏 : 五加皮, 觀 《本經》所主諸症, 皆因風寒濕邪傷於(足少陰·厥陰)二經之故, 而濕氣尤爲最也. 《經》云, …… 肝腎居下而主筋骨, 故風寒濕之邪, 多自二經先受, ……

39) 李梴,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I-上권 p.265

五加皮 苦辛溫寒.風痺躄急步履難.疝瘡癩血肌皮滯.心腹疝痛陰不乾.

40) 本草求真 : 專肝 膽 兼脾, 中藥大辭典 : 心·脾·肝·膽, 申氏本草學 : 心·脾·肝·膽

41) 完광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193

酸棗仁 專入肝膽 兼入脾 甘酸而潤 仍有生熟之分 生則能導虛熱 故療肝熱好眠 神昏躁倦之證 熟則收斂津液 故療膽虛不眠 煩渴虛汗之證 …… 本肝膽二經要藥 因其氣香味甘 故又能舒太陰之脾 時珍曰 今人專以爲心家藥 殊味此理 按肝虛則陰傷而心煩 而魂不能藏 肝藏魂 是以不得眠也 故凡傷寒虛煩多汗 急虛人盜汗 皆炒熟用之 取其收斂肝脾之津液也.

42)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5권 p.2708
藥品化義 : 又取香溫以溫肝·膽, 若膽虛血少, 心煩不寐, 用此使肝·膽血足, 則五臟安和.

43)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5권 p.2707
本草綱目 : 酸棗仁, 甘而潤, 故熟用療膽虛不得眠, 煩渴虛汗之證; 生用療膽熱好眠. 皆足厥陰少陽藥也, …

44) 本草求真 : 專臟腑骨髓, 中藥大辭典 : 肝·胃·大腸, 申氏本草學 : 肺·胃·肝·膽

45)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10권 p.6291
唐本草 : 主骨蒸勞熱, 補肝膽, 明目.

46)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10권 p.6293
本經逢原 : 胡黃連, 苦寒而降, 大伐臟腑骨髓邪熱, 除婦人胎蒸小兒疳熱積氣之峻藥. …… 皆取伐肝·腎熱邪也.

9) 草龍膽

草龍膽의 歸經은 ‘肝·腎·膽·膀胱·胃’⁴⁷⁾이다.

《本草求真》에 “味가 大苦하고 氣가 大寒하여 性이 純陰을 타고 나서 肝膽의 火邪를 크게 瀉한다.”⁴⁸⁾고 하였다.

《申氏本草學》에 “功은 澁味에 있다. 澁은 酸辛의 變味로서 金木의 性を 兼하였으므로 能히 肝家의 邪火를 清斂한다.”⁴⁹⁾ 고 하였다.

《本草綱目》에 “相火가 肝膽에 寄在할 때 瀉의 치료는 하지만 補의 치료는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肝膽 元기를 복돋우는 것은 肝膽의 邪熱을 瀉하기 때문이다.”⁵⁰⁾고 하였다.

《藥品化義》에 “肝·膽의 氣를 瀉하고 目痛頸痛, 兩脇疼痛, 驚癇邪氣, 小兒疳積을 主治하고 대체로 肝經熱邪에 속하여 앓는 자에게 이것을 쓰면 아주 심묘한 효험이 있다.”⁵¹⁾고 하였다.

2. 瀉藥

1) 靑皮

靑皮의 歸經은 ‘肝·膽·三焦’⁵²⁾이다.

《本草求真》에 “味가 苦하므로 肝에 들어가 下氣할 수 있다.”⁵³⁾고 하였다.

《申氏本草學》에 “沈降하여 肝膽氣分에 入하여 低한 것을 治하되 주로 瀉한다.”⁵⁴⁾고 하였다.

《本草綱目》에 “胸膈氣逆, 脇痛, 小腹疝氣를 치료하고 乳腫을 삭이고 肝膽을 소통시키며 肺氣를 瀉한다.”⁵⁵⁾고 하였다.

《本草通玄》에 “肝에 들어가서...결국은 肺, 脾의 병을 많이 치료한다. 瘧에서는 脈이 弦하므로 肝風이 해를 끼친다. 靑皮는 肝에 들어가 散邪하고 脾에 들어가 痰을 씻어 내므로 瘧疾에서는 필수품이다.”⁵⁶⁾고 하였다.

《醫學入門》에 “靑橘葉은 胸脇의 逆氣를 引導하여 치료하며 肝氣를 돌게 하니 乳腫痛 및 脅癱을 치료하는 藥中에 넣어 經絡을 通行시킬 것이다.”⁵⁷⁾고 하였다.

2) 芍藥

白芍藥의 歸經은 ‘肝·脾·肺’⁵⁸⁾이고, 赤芍藥의 歸經은 ‘肝·脾·肺·小腸’⁵⁹⁾이다.

《本草求真》에 “白芍을 肝液과 肝氣를 收斂하여 氣가 妄行하지 못하게 한다. 고 하였으며, 또한 같은 책에 赤芍藥은 肝의 血熱을 瀉한다.”⁶⁰⁾고 하였다.

47) 本草求真：專肝 膽 兼膀胱 腎, 中藥大辭典：肝膽, 申氏本草學：肝·膽·胃·膀胱·腎

48) 원광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583

龍膽草 專入肝膽 兼入膀胱腎 大苦大寒 性稟純陰 大瀉肝膽火邪 …….

49) 申信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669

50) 완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7권 p.4111
本草綱目：相火寄在肝膽, 有瀉無補, 故龍膽之益肝膽之氣, 正以其能瀉肝膽之邪熱也.

51) 완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7권 p.4111
藥品化義：龍草專瀉肝膽之火, 主治目痛頸痛, 兩脅疼痛, 驚癇邪氣, 小兒疳積, 凡屬肝經熱邪爲患, 用之神妙.

52) 本草求真：專肝, 中藥大辭典：肝·膽, 申氏本草學：肝·膽·三焦

53) 원광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420

靑皮 專入肝 …… 靑皮未經寒暑 燥氣不消 故其賦性最劣 其色靑 靑屬木 木主肝 故靑獨于肝經則入 其味苦 故能入肝而下氣

54) 申信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497

55) 완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9권 p.5482
本草綱目：治胸膈氣逆, 脇痛, 小腹疝氣, 消乳腫, 疏肝膽, 瀉肺氣

56) 완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9권 p.5484
本草通玄：靑皮入肝……, 瘧脈自弦, 肝風之祟, 靑皮入肝散邪, 入脾滌痰, 故瘧家必需之品.

57) 李梴,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I-上권 p.493

靑橘葉 導胸脅逆氣 行肝氣 乳腫痛 及脅癱藥中 用之 以行經.

58) 本草求真：白芍-專肝, 中藥大辭典：白芍: 肝·脾, 申氏本草學：白芍: 肺·肝·脾

59) 本草求真：赤芍-專肝, 中藥大辭典：赤芍: 肝·脾, 申氏本草學：赤芍: 肺·肝·脾·小腸

60) 원광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白芍:p.189 赤芍:p.681

白芍 專入肝 有白有赤 白者味酸微寒無毒 功專入肝經血分斂氣 …… 故白芍號爲斂肝之液 收肝之氣 而令氣不妄行也 赤芍 瀉肝血熱. …….

《申氏本草學》에 “芍藥은 脾經血分에 入하고 肝의 大邪를 瀉하여 그 所主가 收하고 補하며, 赤芍藥은 오로지 肝經血分에 入하여 破散과 通利를 主로 한다.”⁶¹⁾ 고 하였다.

《本草正義》에 “옛날에는 赤白의 區別이 없었지만 효능은 물론 다르다. 흰 것은 苦味와 미약한 酸味로서 太陰의 脾陰을 돕고 동시에 肝陰을 補益하며 甲乙의 橫逆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

《神農本草經》에서는 邪氣腹痛, 寒熱疝瘕를 主觀하고 止痛, 益氣한다고 하였으며, 붉은 것은 行滯破血하며 직접 下焦에 달한다. 《神農本草經》에서 除血痺, 破堅積한다.”⁶²⁾고 하였다.

3) 柴胡

柴胡의 歸經은 ‘肝·膽·心包·三焦·胃·大腸’⁶³⁾이다.

《申氏本草學》에 “色紫는 肝에 入하여 陰血의 밀려든 것을 靖한다. 고 하였으며, 같은 책에 瀉火는 肝膽邪鬱에 대하여 말할 뿐이다.”⁶⁴⁾고 하였다.

《滇南本草》에 “肝의 邪熱결핵으로 나는 熱을 除去하며 肝經逆結의 氣를 行한다. 左脇과 肝氣의 疼痛을 멎게하고 여자의 血熱燒經을 치료하며 月經을 잘 조절한다.”⁶⁵⁾고 하였다.

《本草綱目》에 “勞에는 五勞가 있고 病은 五臟에 있다. 勞가 肝·膽·心 및 包絡에 있고 열이 있거나 少陽經에 있고 寒熱이 있는 경우에 柴胡

는 手足이 厥陰·少陽經의 病에 대하여 필수적인 藥이다.”⁶⁶⁾ 고 하였다.

《藥品化義》에 “性能은 輕清하고 昇散하는 效能이 있으며 맛은 약간 쓰고 주로 肝의 鬱結을 풀어준다.”⁶⁷⁾고 하였다.

4) 前胡

前胡의 歸經은 ‘肝·脾·肺·膽·胃·大腸·三焦·膀胱’⁶⁸⁾이다.

《本草求真》에 “肝膽의 外感 風邪와 痰火가 實結된 것을 내려준다.”⁶⁹⁾고 하였다.

《申氏本草學》에 “苦가 厥陰肝家의 熱을 洩하고, 또 肝膨經風邪는 前胡가 아니면 不治한다.”⁷⁰⁾고 하였다.

《滇南本草》에 “傷風傷寒을 解散하고 發汗하는 데 필요한 藥이다. 咳嗽를 멎게 하고 肝氣를 조절하며 눈을 밝게 하고 각막 混濁을 除去하며 內外의 痰을 排出시킨다.”⁷¹⁾고 하였다.

《本草通玄》에 “肺와 肝의 藥이다. 散風驅熱, 消痰下氣, 開胃化食, 止嘔定喘, 除嗽安胎하고 小兒의 夜啼를 멎게 한다. 여러 效力은 모두 搜風 위로 치밀어 오르는 氣를 내리는 效能에 의한 것이므로 肝膽經의 風痰 환자는 이 藥을 쓰지 않고서는 治療할 수 없다.”⁷²⁾고 하였다.

61)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87
 62)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4권 p.2187
 本草正義 : 芍藥, 古無赤白之分, 而功用自別. 白者苦而微酸, 能益太陰之脾陰, 而收換散之人氣, 亦補益肝陰, 而安靖甲乙之橫逆. 《本經》主邪氣腹痛, 寒熱疝瘕, 止痛益氣, 《別錄》……, 赤者行滯破血, 直達下焦. 《本經》所調除血痺, 破堅積.
 63) 本草求真 : 專膽, 中藥大辭典 : 肝·膽, 申氏本草學 : 肝·膽·心包·三焦·胃·大腸
 64)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228
 65)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6권 p.3404
 滇南本草 : 除肝家邪熱癆熱, 行肝經逆結之氣, 止左脇肝氣疼痛, 治婦人血熱燒經, 能調月經.

66)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6권 p.3406
 本草綱目 : 勞有五勞, 病在五臟. 若勞在肝·膽·心及包絡有熱, 或少陽經寒熱者, 則柴胡乃手足厥陰·少陽必用之藥
 67)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6권 p.3409
 藥品化義 : 柴胡, 性輕清, 主升散, 味微苦, 主疏肝.
 68) 本草求真 : 專肝膽, 中藥大辭典 : 肺·脾, 申氏本草學 : 肺·脾·胃·肝·膽·大腸·三焦·膀胱
 69) 원광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523
 前胡 降肝膽外感風邪 痰火實結. 前胡 專入肝膽. ……
 70)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463
 71)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8권 p.4878
 滇南本草 : 解散傷風傷寒, 發汗要藥, 止咳嗽, 升降肝氣, 明目退翳, 出內外之痰.
 72)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8권 p.4879
 本草通玄 : 前胡, 肺肝藥也. ……, 皆是搜風下氣之效, 肝膽經

5) 青黛

青黛의 歸經은 ‘肝·肺·胃’⁷³⁾이다.

《本草求真》에 “肝經의 實火을 크게 瀉하고 肝經에 火가 鬱結된 것을 散한다.”⁷⁴⁾고 하였다.

《本草蒙筌》에 “肝氣를 瀉下하고 심한 泄瀉를 멎게 하며 上膈痰水를 除去하고 流行性 질환으로 인한 頭痛을 除去하며 傷寒赤班을 收斂한다.”⁷⁵⁾고 하였다.

《本經逢元》에 “肝膽의 熱을 瀉하고 鬱火를 풀어주며 溫毒發斑 및 產後 熱痢下重을 治療한다.”⁷⁶⁾고 하였다.

6) 橘葉

橘葉의 歸經은 ‘肝’⁷⁷⁾이다.

《神農本草經疏》에 “古今 方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陽明經·厥陰經의 滯氣를 제거하며 女性의 化膿性 乳腺炎, 內外吹, 乳岩에 모두 효과가 있다.”⁷⁸⁾고 하였다.

朱震亨는 “橫膈膜의 逆氣를 순조롭게 하고 行 肝氣하며 부기를 가라앉히고 解毒하는 효능이 있다.”⁷⁹⁾고 하였다.

《滇南本草》에 “行氣, 消痰하고 肝氣를 내리운다.”⁸⁰⁾고 하였다.

7) 犀角

犀角의 歸經은 ‘心·肝·胃’⁸¹⁾이다.

《日華子諸家本草》에 “心煩을 치료하고 驚悸를 멎게 하며 熱을 내리고 痰을 除去하며 山瘴溪毒(말라리아)을 解毒하며 肝氣를 다스리고 눈을 밝게 한다. 中風失音, 熱毒風, 時氣發狂을 치료한다.”⁸²⁾고 하였다.

《本草綱目》에 “瀉肝凉心하며 清胃解毒한다.”⁸³⁾고 하였다.

《醫學入門》에 “朱丹溪가 말하되 犀性은 走動하며 發散하니 天然痘에 餘毒이 없고 血虛하여 燥熱을 發하는 者라면 禁用이고 兼해 明目消痰止痢하는 작용이 있으니 清心鎮肝하는 藥劑다.”⁸⁴⁾고 하였다.

8) 萎蕤

萎蕤의 歸經은 ‘肺·腎·脾·肝·心’⁸⁵⁾이다.

《本草求真》에 “肝·脾·腎에 들어가 風濕을 除去한다.”⁸⁶⁾고 하였다.

《醫學入門》에 “風熱을 치료하며 四肢拘攣, 跌筋, 結肉을 治療한다.”⁸⁷⁾고 하였다.

風痰爲患者, 捨此, 莫能療. 忌火.

73) 本草求真 : 專肝, 中藥大辭典 : 肝·肺·胃, 申氏本草學 : 肝

74) 원광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581

青黛 大瀉肝經鬱火. 青黛 專入肝 系藍靛浮沫 攪澄 掠出取乾而成 味鹹性寒 色青 大瀉肝經實火 及散肝經火鬱.

75)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9권 p.5442

本草蒙筌 : 瀉肝, 止暴注, 消膈上痰水, 驅時疫頭痛, 斂傷寒赤斑, 水調腹之.

76)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9권 p.5443

本經逢元 : 青黛, 瀉肝膽, 散鬱火, 治溫毒發斑及產後熱痢下重.

77) 中藥大辭典 : 朱震亨-足厥陰肝經氣分

78)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2권 p.686

神農本草經 : 橘葉, …, 能散陽明厥陰經滯氣, 婦人妒乳·內外吹·乳岩·乳癰, 用之皆效, …

79)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2권 p.685

朱震亨 : 導胸膈逆氣, 行肝氣, 消腫散毒, 乳癰脇痛, 用之行經.

80)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2권 p.685

滇南本草 : 行氣消痰, 降肝氣. 治咳嗽·疝氣等證.

81) 本草求真 : 專胃 兼心, 中藥大辭典 : 心·肝, 申氏本草學 : 心·肝·胃

82)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5권 p.2856

日華子諸家本草 : 治心煩, 止驚, 退熱消痰, 解山瘴溪毒, 鎮肝明目. 治中風失音, 熱毒風, 時氣發狂

83)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5권 p.2856

本草綱目 : 瀉肝凉心, 清胃解毒.

84) 李梴,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I-上권 p.368

丹溪曰:犀性走散,痘無餘毒而血虛發燥熱者禁用.兼明目消痰止痢,乃清心鎮肝之劑也.

85) 本草求真 : 專肺 兼肝 脾 腎, 中藥大辭典 : 脾·肺·腎, 申氏本草學 : 心·肺

86) 원광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50

萎蕤 補肺陰止嗽 兼祛風濕. 萎蕤 專入肺 兼入肝 脾 腎. …… 及入肝 脾 腎以祛風濕.

87) 李梴,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I-上권 p.261

《申氏本草學》에 “清涼性滋養強壯劑로서 益陰 長陽한다. 주로 風熱風濕의 入肌作痛을 治한다.”88)고 하였다.

9) 款冬花

款冬花의 歸經은 ‘肺·肝’89)이다.

《神農本草經》에 “咳逆上氣로 숨이 늘 가쁜 증상, 喉痺, 여러 驚癇, 寒熱의 邪氣를 主治한다.”90)고 하였다.

《申氏本草學》에 “氣가 溫하니 天의 春和의 木氣를 稟하고 足厥陰肝經에 入한다.”91)고 하였다.

《日華子諸家本草》에 “洗肝하고 눈을 밝게 하며 中風을 治療한다.”92)고 하였다.

《醫學入門》에 “洗肝作用을 하여 明目하며 咽喉腫痛이 마치 찌르는 것 같은 경우를 治療한다.”93)고 하였다.

10) 吳茱萸

吳茱萸의 歸經은 ‘肝·脾·腎·胃·膀胱’94)이다.

《本草求真》에 “厥陰氣分에 들어가며 散寒除脹한다.”95)고 하였다.

《申氏本草學》에 “味가 極辛하되 辛은 金에

屬하고 金은 木을 平하므로 肝風을 驅逐하는 要藥이 된다.”96)고 하였다.

王好古는 “肝을 潤하게 하고 脾를 燥하게 한다.”97)고 하였다.

《本草便讀》에 “辛苦로써 溫하게 하며 芳香으로써 燥하게 해서 본래 肝의 주요한 藥이다. 그 下氣하는 성질은 매우 신속해서 鬱結을 아주 잘 풀고 散하게 하기 때문에 肝氣鬱結 및 寒濁이 下焦에 머물러서 생기는 腹痛疝瘕 등을 治療한다.”98)고 하였다.

11) 秦皮

秦皮의 歸經은 ‘肝·腎·膽’99)이다.

《本草求真》에 “肝으로 들어가 熱을 없앤다.”100)고 하였다.

《藥性論》에 “시력을 아주 좋게 하고 肝中의 久熱, 두 눈의 赤腫으로 인한 疼痛,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흐르는 症狀을 治療한다.”101)고 하였다.

《日華子諸家本草》에 “肝氣를 맑게 하고 精을 補益하며 시력을 아주 좋게 하고 熱에 의한 小兒의 驚風, 風에 의한 皮膚가 마르는 것을 治療하며 熱을 내리게 한다.”102)고 하였다.

萎蕤 甘平治風熱, 四體拘攣, 跌筋結.

88)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124

89) 本草求真: 專肺, 中藥大辭典: 肺, 申氏本草學: 肺·肝

90)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1권 p.441

神農本草經: 主咳逆上氣善喘, 喉痺, 諸驚癇, 寒熱邪氣.

91)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471

92)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1권 p.442

日華子諸家本草: 洗肝明目及中風.

93) 李梴,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I-上권 p.616

款冬花 溫味辛甘 止勞嗽喘唾稠粘 肺痿煩渴心驚悸 洗肝明目咽如攣

94) 本草求真: 專肝 兼脾 胃 腎 膀胱, 中藥大辭典: 肝·胃, 申氏本草學: 肝·腎·脾·胃·膀胱

95) 完역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371

吳茱萸 逐肝寒氣上逆 吳茱萸 專入肝 兼入脾胃腎膀胱 辛苦燥熱 微毒 專入厥陰(肝)氣分 散寒除脹 東垣云 濁陰不降 厥氣上逆 甚而脹滿 非吳茱萸不可治也

96)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607

97)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7권 p.3987

王好古: 治痞滿塞胸, 咽膈不通, 潤肝燥脾.

98)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7권 p.3991

本草便讀: 吳茱萸, 辛苦而溫, 芳香而燥, 本爲肝之主藥, 而兼入脾胃者, 以脾喜香燥, 胃喜降下也. 其性下氣最速, 極能宣散鬱結, 故治肝氣鬱滯, 寒濁下踞, 以致腹痛疝瘕等疾, ……

99) 本草求真: 專肝 膽 腎, 中藥大辭典: 肝·膽, 申氏本草學: 肝·膽·腎

100) 完역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535

秦皮 專入肝膽腎. 味苦氣寒 … 功專入肝以除熱 入腎以澁氣 ……

101)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8권 p.5197

藥性論: 主明目, 去肝中久熱, 兩目赤腫疼痛, 風淚不止; 治小兒身熱, 作湯浴.

102)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8권 p.5197

日華子諸家本草: 洗肝, 益精, 明目, 小兒熱驚, 皮膚風痺, 退熱.

3. 涼藥

1) 驚甲

驚甲의 歸經은 ‘肝·脾·肺’¹⁰³이다.

《本草求真》에 “厥陰血分에 熱이 積滯되어 癆嗽骨蒸, 寒熱往來, 溫瘧瘡母와 腰腹脇堅, 血瘕痔核, 經阻產難, 瘍癰瘡腫, 驚癩斑痘 등의 證狀이 나타나면 服用하여 鹹味와 平氣로 積熱을 消除할 수 있다.”¹⁰⁴고 하였다.

《申氏本草學》에 “肝으로 走하여 腎을 益하여 熱을 除한다.”¹⁰⁵고 하였다.

2) 菊花

菊花의 歸經은 ‘肝·肺·腎·心·脾·胃·膽·大腸·小腸’¹⁰⁶이다.

《申氏本草學》에 “攝納下降하여 肝火를 平定시키고 內風을 息하고 木氣의 橫逆을 治한다.”¹⁰⁷고 하였다.

《本草綱目》에 “옛 사람들이 風熱을 제거하고 益肝補陰할 수 있다.”¹⁰⁸고 하였다.

《神農本草經》에 “모든 風頭眩, 부어 오르고 아픈 증상, 눈이 빠질 듯이 아픈 증세, 눈물이 나는 증세, 皮膚死肌, 惡風濕痺를 主治하며 血氣를 순조롭게 한다.”¹⁰⁹고 하였다.

《本草正義》에 “무릇 꽃은 모두 宣揚疎泄할 수 있는데 오직 菊花만이 攝納下降하며 平肝火할 수 있고 熄內風하며 木(肝)氣의 熾포한 運行을 抑制한다.”¹¹⁰고 하였다.

3) 草決明

草決明의 歸經은 ‘肝·腎·肺·膽’¹¹¹이다.

《神農本草經》에 “青盲, 目淫膚赤白膜, 눈의 充血과 痛症, 눈물이 멎지 않는 것을 治療하고 오랫동안 服用하면 눈을 밝게 한다.”¹¹²고 하였다.

《本草求真》에 “肝經에 들어가 風邪를 없애고 熱을 흩어낸다.”¹¹³고 하였다.

《藥性論》에 “利五臟, 除肝熱하는 效能이 있다.”¹¹⁴고 하였다.

《本草正義》에 “눈을 밝게하는 效能이 있다는 것은 肝腎을 滋益하여 鎮潛補陰한다는 뜻이다.”¹¹⁵고 하였다.

4) 車前子

車前子의 歸經은 ‘肝·肺·腎·脾·膀胱·小腸’¹¹⁶이다.

《本草求真》에 “肝과 肺의 濕熱을 淸하여 膀胱

濕痺, 利血氣.

110)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경담, 1997, 2권 p.638

本草正義 : 凡花皆主宣揚疏泄, 濁菊花則攝納下降, 能平肝火, 熄內風, 抑木氣之橫逆.

111) 本草求真 : 專肝, 中藥大辭典 : 肝·腎, 申氏本草學 : 肺·膽·腎

112)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경담, 1997, 1권 p.201

神農本草經 : 治青盲, 目淫膚赤白膜, 眼赤痛, 淚出, 久服益精光.

113) 完역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257

決明子 專入肝 氣稟淸陽 味鹹苦甘 微寒無毒 能入肝經除風散熱

114)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경담, 1997, 1권 p.201

藥性論 : 利五臟, 除肝家熱.

115)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경담, 1997, 1권 p.203

本草正義 : 決明子明目, 乃滋益肝腎, 以鎮潛補陰爲義, ……

116) 本草求真 : 專肝 肺, 中藥大辭典 : 腎·膀胱, 申氏本草學 : 肺·脾·肝·腎·小腸·膀胱

103) 本草求真 : 專肝, 中藥大辭典 : 肝·脾, 申氏本草學 : 肝·肺·脾

104) 完역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645

驚甲 瀉陰分積熱 除勞嗽骨蒸. 驚甲 專入肝 味鹹氣平 色青 書雖載屬補肝 青入肝 … 然究皆屬除熱削肝之品 介蟲皆屬陰寒故能除熱 非眞滋肝藥也 凡厥陰血分積熱 而見癆嗽骨蒸 寒熱往來 溫瘧瘡母 及腰腹脇堅 血瘕痔核 經阻產難 瘍癰瘡腫 驚癩斑痘等證 服此鹹平 能以消除.

105)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140

106) 本草求真 : 專肝 肺 腎, 中藥大辭典 : 肺·肝, 申氏本草學 : 心·肝·脾·肺·胃·膽·大腸·小腸

107)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249

108)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경담, 1997, 2권 p.636

本草綱目 : 菊花, 昔人謂其能除風熱, 益肝補陰.

109)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경담, 1997, 2권 p.635

神農本草經 : 主諸風頭眩·腫痛, 目欲脫, 淚出, 皮膚邪肌, 惡風

胱의 水邪를 끌어낸다.”¹¹⁷⁾고 하였다.

《申氏本草學》에 “明目한다고 하는 것은 肝熱을 淸하기 때문이니 釜底에 薪을 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¹¹⁸⁾고 하였다.

《藥性論》에 “風毒, 肝中風熱, 風毒衝眼目, 赤痛障翳, 腦痛淚出을 治療한다.”¹¹⁹⁾고 하였다.

《本草彙言》에 “行肝, 疏腎, 暢鬱和陽하며 和肝藥으로 쓰면 目赤目昏을 治療한다.”¹²⁰⁾고 하였다.

《藥品化義》에 “맛이 싱겁고 性質은 滑한데 滑은 暑를 제거할 수 있고 淡滲熱할 수 있다. 暴赤眼痛, 淚出腦疼, 翳癢障目 및 尿管澁痛 遺精尿血, 癰閉淋瀝, 여자의 陰癰으로 아프고 부어서 가려운 症狀들은 모두 肝熱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쓰면 肝經에 들어가서 熱을 인도하여 하행시키게 되므로 濁은 자연히 맑아진다.”¹²¹⁾고 하였다.

5) 三稜

三稜의 歸經은 ‘肝·脾·肺’¹²²⁾이다.

《申氏本草學》에 “性은 降이 升보다 뛰어나고 肝經血分에 入하여 血中氣滯를 破하고 능히 徵上 徵下하여 마치 雷瀝風行의 勢가 있어서 散血·行

氣·攻堅消積의 要藥이 된다.”¹²³⁾고 하였다.

王好古는 “血中の 氣를 破하고 肝經血分의 藥이다.”¹²⁴⁾고 하였다.

6) 蕪荑

蕪荑의 歸經은 ‘脾·肝·胃’¹²⁵⁾이다.

《神農本草經》에 “五內邪氣를 다스리고 皮膚骨節 가운데의 淫溫, 毒이 퍼지는 것을 除去하며 三蟲을 除去하고 食滯를 除去한다.”¹²⁶⁾고 하였다.

《海藥本草》에 “冷痢의 心氣를 치료하며 기생충을 구제하고 痛症을 緩和시킨다.”¹²⁷⁾고 하였다.

《藥性論》에 “積冷氣, 心腹의 癥痛을 다스리고 肌膚絶 中風으로 蟲이 기어가는 듯한 증세를 除去한다.”¹²⁸⁾고 하였다.

4. 溫藥

1) 木香

木香의 歸經은 ‘肝·脾·肺·三焦’¹²⁹⁾이다.

《本草求真》에 “肝이 虛寒하여 氣鬱 氣逆症狀이 있을 때 辛香味苦한 木香을 服用하면 下氣寬中한다.”¹³⁰⁾고 하였다.

《本草綱目》에 “三焦의 氣分의 藥이기에 모든

117) 원광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450

車前子 淸肝肺風熱 以導膀胱水邪. 車前子 專入肝肺 甘鹹性寒……

118)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347

119)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8권 p.5215
藥性論: 風毒, 肝中風熱, 毒風衝眼目, 赤痛障翳, 腦痛淚出, 去心胸煩熱.

120)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8권 p.5217
本草彙言: 車前子, 行肝疏腎, 暢鬱和陽, 同補腎藥用. 令強陰有子; 同和肝藥用, 治目赤目昏

121)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8권 p.5217
藥品化義: 取其味淡性滑, 滑可去暑, 淡能滲熱, 用入肝經, 又治暴赤眼痛, 淚出腦疼, 翳癢障目 及尿管澁痛, 遺精溺血, 癰閉淋瀝, 下疳便毒, 女人陰癰作痛或發腫癢, 凡此俱屬肝熱, 導熱下行, 則濁自淸矣.

122) 本草求真: 專入肝, 中藥大辭典: 肝·脾, 申氏本草學: 肺·肝·脾

123)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548

124)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5권 p.2745
王好古: 三稜, 破血中之氣, 肝經血分藥也.

125) 本草求真: 專脾 兼肝, 中藥大辭典: 脾·胃

126)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4권, p.1852
主五內邪氣, 散皮膚骨節中淫溫行毒, 去三蟲, 化食.

127)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4권, p.1853
治冷痢心氣, 殺蟲止痛.

128)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4권, p.1852
能主積冷氣, 心腹癥痛, 除肌膚絶中風淫淫如蟲行.

129) 本草求真: 專肝 脾, 中藥大辭典: 肺·肝·脾, 申氏本草學: 三焦·肺·脾·肝

130) 원광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p.334

木香 專入肝脾 味辛而苦 下氣寬中 爲三焦氣分要藥 然三焦則又以中爲要 故凡脾胃虛寒凝滯而見吐瀉停食 肝虛寒入而見氣鬱氣逆 服此辛香味苦 則能下氣而寬中矣 中寬則上下皆通 是以號爲三焦宣滯要劑

氣를 잘 升降시킨다. 肝氣가 鬱結하면 痛症이 생긴다. 때문에 本藥은 下焦의 氣滯에 적용된다. 즉 막힌 것을 通하게 하는 것이다.”¹³¹⁾ 고 하였다.

2) 肉桂

肉桂의 歸經은 ‘肝·腎·脾·心·命門·膀胱’¹³²⁾이다.

《申氏本草學》에 “色의 紫가 肝에 入하고 味의 辛은 肝을 補하고 痼冷沈寒을 決하고 氣血을 宣達하고 命門火를 助하고 少陽經과 肝의 主藥이 된다.”¹³³⁾고 하였다.

《玉楸藥解》에 “덥히고 소동시키며 血中의 溫氣를 잘 補한다. 香甘은 土에 진입하고 辛甘은 木에 진입하며 辛香의 氣는 結滯를 잘 行하게 하므로 肝脾의 鬱結을 제일 잘 풀어준다.”¹³⁴⁾고 하였다.

《明盤別錄》에 “肝脾의 元氣를 복돋우며 心腹寒冷, 冷疾, 癩亂으로 인한 筋肉痙攣, 頭痛, 腰痛, 咳嗽, … 骨節을 튼튼히 하며 血液 循環을 促進시키고 不足한 것을 補充하며 모든 藥을 이끌고 꺼리는 藥이 없다.”¹³⁵⁾고 하였다.

3) 陳皮

陳皮의 歸經은 ‘脾·肺·肝·大腸胃’¹³⁶⁾이다.

《本草經百種錄》에 “전체에 香氣가 있는 것

같지만 껍질은 맵고 果肉은 시큼하여 肝膽通氣의 약이다. 그러므로 肝氣가 不舒하고 脾土을 克賊하는 疾病은 모두 다스릴 수 있다.”¹³⁷⁾고 하였다.

《臨床本草學》에 “靑皮는 미성숙한 果皮로서 性質이 비교적 峻烈하므로 疏肝破氣, 消積化滯 등의 方向으로 작용하며, 陳皮는 성숙한 果皮로서 오래 묵혔기 때문에 성질이 비교적 완만하여 그 효능이 健脾行氣, 燥濕化痰 등의 方向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肝氣의 鬱滯가 있을 때는 대개 脾胃에 영향을 주어 肝脾의 不和가 되기 때문에 脇肋疼痛이나 胃脘脹痛 등의 병증이 있게 되므로 靑皮와 陳皮를 함께 配合할 수 있다.”¹³⁸⁾고 하였다.

《醫林纂要》에 “위에서 瀉肺邪, 降逆氣하는 효능이 있고 가운데서 燥脾濕, 和中氣하는 효능이 있으며 아래에서 舒肝木, 滋腎命하는 효능이 있다. 따라서 順氣, 消痰, 去鬱하는 작용이 있다.”¹³⁹⁾고하였다.

3.2 他臟에 作用하는 藥物

1. 補藥

1) 黃芪

黃芪의 歸經은 ‘肺·脾·腎·大腸三焦’¹⁴⁰⁾이다.

《醫學入門》에 “맛이 달고 性は 溫하며 無毒하다. 三焦를 補益하는 作用이 있어 羊肉이라 부르기도 한다. 癰疽를 內托해 주며 膿을 收斂하고 津液을 發生하여 退熱하는 効가 더욱 速하다.”¹⁴¹⁾

131)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4권 p.1812
本草綱目 : 木香, 乃三焦氣分之藥, 能升降諸氣. …… , 故下焦氣滯者宜之, 乃寒者通之也.

132) 本草求真 : 專命門 肝, 中藥大辭典 : 腎·脾·膀胱, 申氏本草學 : 脾·心·腎·肝·命門

133)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p.20

134)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7권 p.4356
玉楸藥解 : 肉桂, 溫暖條暢, 大補血中溫氣. 香甘入土, 辛甘入木, 辛香之氣, 善行滯結, 是以最解肝脾之鬱.

135)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7권 p.4351
名盤別錄 : 主溫中, 利肝肺氣, 心腹寒熱, 冷疾, 霍亂轉筋, 頭痛, 腰痛, 止睡, 咳嗽, 鼻鼈; 能墮胎, 堅骨節, 通血脈, 理疏不足; 宣導百藥, 無所畏.

136) 本草求真 : 轉入脾 肺 兼入大腸, 中藥大辭典 : 脾·肺, 申氏本草學 : 肺·肝·脾胃

137)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2권 p.691
本草經百種錄 : 橘柚通體皆香, 而皮辛肉酸, 乃肝膽通氣之藥也. 故凡肝氣不舒, 克伐脾土之疾, 皆能已之.

138)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7, p.471

139)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2권 p.691
醫林纂要 : 橘皮, 上則瀉肺邪, 降逆氣; 中則燥脾濕, 和中氣; 下則舒肝木, 潤腎命. 主於順氣·消痰·去鬱.

140) 本草求真 : 專肺 兼脾, 中藥大辭典 : 肺·脾, 申氏本草學 : 肺·脾·腎·大腸三焦

141) 李樞,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I-上권 p.470

고 하였다.

《神農本草經》에 “癰疽, 慢性瘡, 大風癩疾, 五痔, 鼠瘻. 小兒百病을 치료하고 排膿痛症을 緩和시키고 元氣를 회복시킨다.”¹⁴²⁾고 하였다.

《藥性歌》에 “汗表를 거둔다. 瘡을 헤쳐 살이 나게 하며, 虛한데 많이 쓴다.”¹⁴³⁾고 하였다.

《臨床本草學》에 “補氣升陽하는 작용이 있어 脾虛泄瀉, 脫肛, 氣虛血脫, 自汗, 盜汗, 癰疽久不潰破, 潰久收斂등의 병증을 치료한다.”¹⁴⁴⁾고 하였다.

2) 人蔘

人蔘의 歸經은 ‘肺·脾·腎·胃’¹⁴⁵⁾이다.

《醫學入門》에 “맛이 달고 性은 溫하다. 五臟을 補하며 止渴調中하며 濕痰을 通利시킨다. 明目開心하며 血脈을 通하게 하고 安魂 定魄하며 中虛煩熱을 解熱시킨다.”¹⁴⁶⁾고 하였다.

《日華子諸家本草》에 “中焦를 調和시키고 氣를 다스리며 消化를 促進시키고 食慾이 나게 한다.”¹⁴⁷⁾고 하였다.

《醫學啓源》에 “脾胃의 陽氣가 부족한 증세 및 肺氣가 다급하여 숨이 차는 증세를 치료한다. 中氣를 보양하고 弛緩시키며 肺·脾·胃 속의 火邪를 瀉한다.”¹⁴⁸⁾고 하였다.

黃耆

甘溫性無毒. 補益三焦呼羊肉. 內托癰疽外斂汗. 生津退熱效尤速.

142)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경당, 1997, 10권 p.6465

神農本草經 : 主癰疽, 久敗瘡, 排膿止痛, 大風癩疾, 五痔, 鼠瘻, 補虛, 小兒百病.

143) 黃度淵, 方藥合編, 서울, 남산당, 1994, p.122

黃芪甘溫收汗表 托瘡生肌虛莫少

144)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7, p.194

145) 本草求真 : 專脾 兼脾, 中藥大辭典 : 脾·肺, 申氏本草學 : 肺·脾·腎

146) 李槭,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I-上권 p.467

人蔘

甘溫補五臟止渴調中利濕痰明目開心通血脈安魂定魄解虛煩.

147)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경당, 1997, 7권 p.4484

日華子諸家本草 : 調中治氣, 消食開胃.

148)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경당, 1997, 7권 p.4484

3) 芡實

芡實의 歸經은 ‘脾·腎·心·肝·胃’¹⁴⁹⁾이다.

《神農本草經》에 “濕氣로 인해 허리와 등·무릎이 쭈시는 병증세를 治療하고 中焦를 補養하여 급성 질환을 예방하며 精氣를 보충하고 의지를 굳세게 하며 눈과 귀를 밝게 한다.”¹⁵⁰⁾고 하였다.

《藥性歌》에 “味甘하다. 精력을 補益하며, 허리와 무릎의 濕痺, 酸疼을 아울러 다스린다.”¹⁵¹⁾고 하였다.

《臨床本草學》에 “健脾除濕과 固澁止帶의 효능이 있다.”¹⁵²⁾고 하였다.

2. 溫藥

1) 半夏

半夏의 歸經은 ‘脾·心·肺·胃·膽·大腸’¹⁵³⁾이다.

《醫學入門》에 “맛이 맵고 氣도 역시 平하다. 濕痰을 除去하여 脾胃經을 強健하게 한다. 傷寒 嘔吐·咳逆上氣·咽喉腫痛을 치료하고 胸滿頭疼을 치료하는 效가 있다.”¹⁵⁴⁾고 하였다.

《藥性論》에 “痰涎을 없애고 食慾을 增進시키며 脾를 健강하게 한다. 嘔吐를 멎게 하며 胸中의 痰滿을 없애고 肺氣를 내려주며 咳結을 主治한다.”¹⁵⁵⁾고 하였다.

醫學啓源 : 治脾胃陽氣不足及肺氣促, 短氣, 少氣, 補中緩中, 瀉肺脾胃中火邪.

149) 本草求真 : 專脾腎, 中藥大辭典 : 脾·腎, 申氏本草學 : 脾·胃·心·肝·腎

150)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경당, 1997, 1권 p.183

主濕痺腰脊膝痛, 補中除暴疾, 益精氣, 強志, 令耳目聰明.

151) 黃度淵, 方藥合編, 서울, 남산당, 1994, p.277

芡實味甘能益精 腰膝濕痺酸疼并

152)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7, p.804

153) 本草求真 : 專脾 胃 膽 兼心, 中藥大辭典 : 脾·胃, 申氏本草學 : 脾·胃·膽·心·肺·大腸

154) 李槭,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I-上권 p.487

半夏 味辛氣亦平. 去濕痰健胃脾經. 傷寒嘔欬咽喉腫. 胸滿頭疼盡忌生.

155)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경당, 1997, 4권 p.1964

《醫學啓源》의 主治秘要에 胃濕을 마르게 하고 痰을 제거하며 脾胃의 元氣를 복돋우고 腫을 제거하며 結을 散한다. 胸中の 痰涎을 除去한다. “156)고 하였다.

2) 肉苳蔻

肉苳蔻의 歸經은 ‘脾·大腸胃’157)이다.

《醫學入門》에 “맛이 맵고 性은 溫하다. 補中을 하고 下氣시키며 消痰하며 開胃·寬胸하는 作用을 한다. 霍亂·心腹이 膨脹疼痛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大腸을 充實하게 하여 久瀉에 奇異한 功效가 있다.”158)고 하였다.

《開寶本草》에 “中焦를 따뜻하게 하고 積冷으로 인한 心腹脹痛, 霍亂中惡, 嘔沫, 冷氣를 치료하고 消化를 促進시키며 泄瀉를 멎게 하고 小兒霍亂을 치료한다.”159)고 하였다.

《本草綱目》에 “脾胃를 따뜻하게 하고 大腸을 收斂한다.”160)고 하였다.

3) 檳榔

檳榔의 歸經은 ‘脾·胃·大腸’161)이다.

《醫學入門》에 “맛이 辛苦하고 잘 調中·下氣

시키며 諸藥性을 墜降시키는 藥이며 三蟲을 죽인다. 穀食을 消化하며 非生理的水分을 驅逐하며 痰癖을 除去하고 瘧疾·痢疾·脚氣와 諸風을 除去한다.”162)고 하였다.

《本草正》에 “性質이 溫하며 또 辛하므로 脾를 깨우고 氣를 利하며 味가 甘하고 겸하여 淡하므로 脾를 건고히 하고 氣를 튼튼히 하고 中에 머물은 것을 行하게 하는 약이다.”163)고 하였다.

《本草彙言》에 “여러 가지 氣를 主治하기 때문에 瘴氣를 없애고 滯氣를 破하고 鬱氣를 열고 痰氣를 내려보내고 積氣를 없애고 蠱氣를 풀어 穀氣를 소화시키며 水氣를 몰아내며 脚氣를 흩어지게 하며 虫氣를 죽이며 上氣를 통하게 하며 中氣를 넓히며 下氣를 흐르게 하는 약으로 쓰이고 있다.”164)고 하였다.

4) 萆撥

萆撥의 歸經은 ‘脾·胃·膀胱·大腸’165)이다.

《醫學入門》에 “性이 熱하고 맛은 맵다. 胃冷을 除去하고 下氣시키며 消痰하며 積인 痰癖을 破壞하는데 猛烈하다. 嘔逆·吞酸·瀉痢·心腹疼을 사라지게 하고 腎冷의 寒疝과 腰脚의 痲痺을 다스린다.”166)고 하였다.

藥性論 : 消痰涎, 開胃健脾, 止嘔吐, 去胸中痰滿, 下肺氣, 主咳結.

156)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4권 p.1964

醫學啓源 : 治寒痰及形寒飲冷傷肺而咳, ……《主治秘要》云 燥胃濕火痰, 益脾胃氣, 消腫散結, 除胸中痰涎.

157) 本草求真 : 專脾胃 兼大腸, 中藥大辭典 : 脾·大腸, 申氏本草學 : 脾·胃·大腸

158) 李槤,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I-上권 p.767

肉苳蔻辛溫補中 下氣消痰開胃胸 霍亂心腹多膨痛 實腸久瀉有奇功

159)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7권 p.4361

開寶本草 : 溫中, 治積冷心腹脹痛, 霍亂中惡, 嘔沫, 冷氣, 消食止泄, 小兒乳霍.

160)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7권 p.4361

本草綱目 : 暖脾胃, 固大腸.

161) 本草求真 : 專腸胃, 中藥大辭典 : 脾·胃·大腸, 申氏本草學 : 胃·大腸

162) 李槤,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I-上권 p.798

檳榔 辛苦善調中 下氣墜藥殺三蟲 消穀逐水除痰癖 瘧痢脚氣與諸風

163)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5권 p.2494

本草正 : 總之, 此物性溫而辛, 故能醒脾利氣, 味甘兼澁, 故能固脾壯氣, 是誠行中有留之劑.

164)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5권 p.2493

本草彙言 : 檳榔, 主治諸氣, 祛瘴氣·破滯氣·開鬱氣·下痰氣·去積氣·解蠱氣·消穀氣·逐水氣·散脚氣·殺蟲氣·通上氣·寬中氣·泄下氣之藥也.

165) 本草求真 : 專胃 兼脾 膀胱, 中藥大辭典 : 脾胃, 申氏本草學 : 胃·脾·大腸·膀胱

166) 李槤,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I-上권 p.772

萆撥 熱辛除胃冷 下氣消痰破積猛 嘔酸瀉痢腹心疼 治腎寒疝腰脚青

《本草拾遺》에 “中焦를 따뜻하게 하고 위로 치밀어 오르는 氣를 내린다. 腰脚을 補養하고 음식물을 消化시키며 胃冷, 陰疽, 痲痺(胸腹의 結塊)을 除去한다.”¹⁶⁷⁾고 하였다.

《本草正義》에서 “脾胃의 虛寒을 치료하는 주요한 藥이다.”¹⁶⁸⁾고 하였다.

IV. 考察

肝은 “將軍之官, 謀慮出焉”이라 하여 人體의 중요한 臟器 중의 하나로서 本性은 剛急하고 好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⁶⁹⁾ 또한 人體 운동의 發源地로 肝血이 運動의 根本인 筋을 滋養하는 故로 “能極之本”이라고 하였다.¹⁷⁰⁾

肝은 人體에서 肝臟血, 肝主疏泄, 肝主筋, 神經症狀, 眼疾患 등과 밀접한 關聯을 가지고 있다.¹⁷¹⁾

肝臟의 陰陽氣血이 失調되거나 損傷을 당하면 脇痛·煩悶·易怒를 主症으로 하여 頭·目·耳·瓜甲·筋·少腹·陰囊·辜丸 등의 症狀들이 主로 나타나게 된다.¹⁷²⁾

五臟病證의 通治要法은 生克乘侮의 規律에 依據하는데, 肝의 相生關係 平衡喪失로 인한 傳變은 木旺生火, 木病及水, 木不生火, 木衰水虧가 있고, 相克關係 平衡喪失로 인한 傳變은 木行乘土, 木火刑金, 金勝克木, 木不疏土가 있다.¹⁷³⁾ 또한 臟腑間

의 相互影響은 相互資生과 相互抑制 關係로 이루어지는데,¹⁷⁴⁾ 일반적으로 臟腑兼病은 臟과 臟사이의 兼病이 爲主가 된다.

肺·肝에서 肺는 氣를 주관하며 肅降하는 特性이 있고, 肝은 藏血을 주관하므로 升發하는 特性이 있어서 이들 兩臟은 人體氣機의 升降運動이 이루어지는 關係¹⁷⁵⁾로 咳嗽가 끊임없이 발생하고甚하면 咳血함, 胸脇纂痛, 頭眩昏脹, 面目赤熱, 口苦唇燥, 性急善怒, 舌紅苔薄, 脈弦數 등의 肝火灼肺證이 나타난다.¹⁷⁶⁾

肝·腎에서 肝은 血을 藏하고 腎은 精을 藏하므로 血과 精의 關係¹⁷⁷⁾로 面色憔悴, 兩觀軟紅, 頭眩, 目乾, 耳鳴, 肢體麻木, 視物模糊, 口唇指甲蒼白, 腰膝酸痛或痿軟, 咽喉乾痛, 微熱盜汗, 心煩不寐, 大便難澁, 男子遺精, 女子月經不調(經少 또는 經閉), 혹은 帶下, 舌紅無苔, 脈細數 등의 肝腎陰虛證이 나타난다.¹⁷⁸⁾

脾·肝에서 脾는 生血하면서 運化를 주로 하고, 肝은 藏血하면서 疏泄을 주로 하기 때문에 運化와 疏泄의 關係¹⁷⁹⁾로 易怒, 胸脇과 腕腹이 脹痛, 納呆, 腸鳴便溏, 舌苔白膩, 脈弦緩有力 등의 肝脾不和證이 나타난다.¹⁸⁰⁾

肝·心에서 肝은 血液을 貯藏調節하며 疏泄機能을發揮하여 氣機를 調暢하고 心은 一身의 血液運行의 中心이 되고 精神活動을 主宰함으로

167)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9권 p.5921
本草拾遺: 溫中下氣, 補腰脚, 消食, 除胃冷, 陰疽, 痲痺
168)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9권 p.5922
本草正義: 葦芩, 脾胃虛寒之主藥
169)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139
170) 黃帝內經 素門, 서울, 成輔社, 1994, p.131
《素問六節藏象論》 “肝者能極之本 魂之居也 其華在爪 其充在筋 以生血氣 其味酸 其色蒼 此爲陽中之少陽 通于春氣
171) 柳志允, 辨證施治臨床要綱, 서울, 永林社, 1998, p.228
172)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98
173)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330

174)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335~338
175)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311
176)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327
177)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314
178)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326
179)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313
180)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324

血液과 精神的인 面으로 心悸, 失眠, 多夢, 易驚, 眩暈, 兩目乾澁或內抽, 視物模糊, 脇肋隱痛, 肢體麻木, 筋脈拘攣, 低熱盜汗, 女子月經澁少 등의 心肝血虛證이 나타나게 된다.¹⁸¹⁾

以上과 같이 本臟에 病이 發生하면 他臟腑에 影響을 미치게 되고, 他臟腑에서 疾病이 發生하면 本臟에도 病變이 發生하여 影響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醫學入門臟腑條分》에 제시된 肝臟에 作用하는 藥物에 관하여 分析한 결과 肝臟이라는 本臟에 作用하는 藥物이 있고 他臟에 作用하여 肝臟에 影響을 미치는 藥物로 區分되었다.

肝臟 本臟에 作用하는 藥物로 菊花·草決明·萎蕤·五加皮·沙蔘·前胡·青黛·胡黃連·犀角·柴胡·龍膽草·車前子·秦皮·鱉甲·陳皮·橘葉·青皮·薏苡仁·木瓜·阿膠·酸棗仁·川芎·芍藥·肉桂·木香·蕪荑·款冬花·吳茱萸·三稜 등은 情志變化, 脇痛, 脇脹, 少腹痛, 眩暈, 頭痛, 耳鳴耳聾, 搐瘈麻木, 口苦, 疝氣, 月經不調, 吐衄, 眼目症狀, 黃疸, 寒熱往來 등¹⁸²⁾ 肝臟의 屬性과 관련된 病變에 관한 效能을 가지고 있다.

木瓜는 “肝에 들어가서 筋肉을 돕고 血液 循環을 促進시킨다.”고 하였다.

阿膠는 “肝經으로 들어가서 血을 기른다.”고 하였다.

川芎은 “肝氣의 循環을 조절하고 肝血을 補養하며 肝燥를 축축하게 하고 風虛를 補養한다.”고 하였다.

沙蔘은 “散血·分積·養肝하는 功效가 많은 것이니 잠을 자려고 하며 多驚, 多煩등이 있는 환자에 가장 마땅하므로 厥陰의 本藥이다.”고 하였다.

薏苡仁은 “風濕痺를 除去하며 筋攣骨痛하여 屈

伸하기 어려운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五加皮는 “風濕으로 인한 痿痺를 치료하며 筋骨을 강하게 한다.”고 하였다.

酸棗仁은 “肝膽의 血을 충족하게 하면 五臟이 安和하게 되고 숙면을 取할 수 있다.”고 하였다.

胡黃連은 “骨蒸勞熱을 다스리고 肝膽을 補養하며 눈을 밝게 한다.”고 하였다.

草龍膽은 “肝膽 元氣를 복돋우는 것은 肝膽의 邪熱을 瀉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이에 木瓜·阿膠·川芎·沙蔘·薏苡仁·五加皮·酸棗仁·胡黃連·草龍膽은 肝臟에 補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靑皮는 “沈降하여 肝膽氣分에 入하여 低한 것을 治하되 주로 瀉한다.”고 하였다.

芍藥은 “白芍은 肝의 大邪를 瀉하며, 赤芍은 肝經血分에 入하여 破散과 通利를 주로 한다.”고 하였다.

柴胡는 “輕清하고 昇散하는 효능이 있으며 肝의 鬱結을 풀어준다.”고 하였다.

前胡는 “肝膽의 外感 風邪와 痰火가 實結된 것을 내려준다.”고 하였다.

靑黛는 “肝經의 實火를 크게 瀉하고 肝經에 火가 鬱結된 것을 散한다.”고 하였다.

橘葉은 “橫膈膜의 逆氣를 순조롭게 하고 行肝氣하며 浮氣를 가라앉히고 解毒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犀角은 “熱을 내리고 痰을 除去하며 山瘴溪毒을 해독하며 肝氣를 다스리고 눈을 밝게 한다.”고 하였다.

萎蕤는 “肝脾腎에 들어가 風濕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款冬花는 “洗肝하고 눈을 밝게 하며 中風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吳茱萸는 “肝의 주요한 藥으로 肝氣鬱結 및 寒

181) 金完熙,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305~309, 318

182)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150

濁이 下焦에 머물러서 생기는 腹痛疝瘕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秦皮는 “肝으로 들어가 熱을 없앤다.”고 하였다.

이에 靑皮·芍藥·柴胡·前胡·靑黛·橘葉·犀角·萎蕤·款冬花·吳茱萸·秦皮는 肝臟에 瀉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鱉甲은 “肝으로 走하여 腎을 益하여 熱을 除한다.”고 하였다.

菊花는 “風熱을 除去하고 益肝補陰할 수 있다.”고 하였다.

草決明는 “肝經으로 들어가 風邪를 없애고 熱을 흠어낸다.”고 하였다.

車前子는 “肝經으로 들어가서 熱을 인도하여 下行시키게 하므로 濁은 자연히 맑아진다.”고 하였다.

三稜은 “肝經血分에 入하여 血中氣滯를 破한다.”고 하였다.

蕪荑는 “五內邪氣를 다스리고 皮膚, 骨節 가운데의 淫溫, 毒이 퍼지는 것을 除去하며 三蟲을 除去한다.”고 하였다.

이에 鱉甲·菊花·草決明·車前子·三稜·蕪荑는 肝臟의 涼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木香 “肝이 虛寒하여 氣鬱 氣逆증상이 있을 때 下氣寬中한다.”고 하였다.

肉桂는 “답히고 소통시키며 血中の 溫氣를 잘 補해서 肝脾의 鬱結을 제일 잘 풀어준다.”고 하였다.

이에 木香·肉桂는 肝臟의 溫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以上은 肝臟 本臟의 藥物에 대한 分析이다.

다음으로 他臟에 作用하는 藥物이 肝臟에 影響을 미치는 藥物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黃芪·人蔘·芡實·半夏·肉苳蔻·檳榔·葶藶 등은 他臟에 作用하는 藥物로 肝臟에 들어가는

歸經은 없지만 補肝血·滋肝陰·行肝血·理肝氣·清肝·溫肝寒·平肝潛陽등의 效能¹⁸³⁾을 가지고 있다.

黃芪의 歸經은 ‘肺·脾·腎·大腸·三焦’으로 補氣升陽固表止寒托毒排膿하는 效能¹⁸⁴⁾이 있고, 人蔘의 歸經은 ‘肺·脾·腎·胃’로 大補元氣補脾益氣生津止渴하는 效能¹⁸⁵⁾이 있다. 歸經에 肝臟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는 “謀慮가 快하지 못하고 肝이 虛하여 다른 臟의 熱이 肝으로 옮겨오면 血이 입과 코로 妄行하고 血便이나 血尿가 될 것이니 이는 肝이 血을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⁸⁶⁾라고 하였으므로 脾虛를 치료하여 肝虛證에 적용하여 他臟에 作用하여 肝臟을 치료하는 藥物임을 알 수 있었다.

芡實의 歸經은 ‘脾·腎·心·肝·胃’로 健脾除濕固澁止帶하는 效能¹⁸⁷⁾이 있으며, 半夏의 歸經은 ‘脾·心·肺·胃·膽·大腸’으로 燥濕化痰消痞散結하는 效能¹⁸⁸⁾이 있다.

肉苳蔻의 歸經은 ‘脾·大腸·胃’으로 溫中行氣하는 作用으로 止痛의 效能¹⁸⁹⁾이 있으며, 葶藶의 歸經은 “脾·胃·膀胱·大腸”으로 溫中散寒下氣止痛하는 效能¹⁹⁰⁾이 있다.

歸經에 肝臟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는 “冷하면 痰이 생겨서 가슴이 가득찬 것처럼 답답하고 맑은 물을 토하며 신선한 채소를 먹기 싫어하고甚하면 오줌을 참지 못해 줄줄 새고 혹은甚한 泄瀉가 된다. 무릇 冷

183)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153

184)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7, p.194

185)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7, p.188

186) 李槌,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 권 p.432

187)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7, p.804

188)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7, p.820

189)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7, p.808

190)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7, p.314

症은 다 치료하기 어렵다.”¹⁹¹⁾라고 하였으므로 脾寒을 치료하여 肝寒證에 적용하여 他臟에 작용하여 肝臟을 치료하는 藥物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臟腑 辨證 치료 시에 本臟에 관한 藥物도 本臟에 작용하는 藥物에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표4> 《醫學入門·臟腑條分》중 肝臟편 病理機轉과 藥物

肝氣證	者	→ 脾氣入肝	檳榔
肝冷證	者	→ 脾冷入肝	萆撥 半夏 芡實 肉苳蔻
肝虛證	者	→ 脾虛入肝	黃芪 人蔘

檳榔의 歸經은 ‘脾胃·大腸’으로 行氣利水の 效能이 있어 食積氣滯脘腹脹痛脚氣腫痛을 치료한다. 歸經에 肝臟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는 “肝氣가 역상하면 頭頂이 어지럽고 아프며 肝積인 肥氣가 옆구리 틈에 잔을 얹어 놓은 것 같이 생긴다.”¹⁹²⁾하고 하였으므로 脾氣를 치료하여 肝氣證에 적용하여 他臟에 작용하여 肝臟을 치료하는 藥物임을 알 수 있었다.

肝과 脾의 關係는 五行의 相生·相剋原則에 따라 ‘木克土’를 의미¹⁹³⁾하며 肝은 藏血하면서 疏泄을 주로 하고, 脾는 生血하면서 運化를 주로 하므로 肝·脾는 運化와 疏泄의 관한 것¹⁹⁴⁾으로 脾라는 他 臟腑에 작용하여 肝臟部에 影響을 미치는 藥物에 포함시켰다고 思料된다.

以上과 같이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肝臟에 작용하는 藥物에 관하여 文獻的으로 考察한 결과 藥物治療에 있어서 臟腑間에 相互連繫·相互依存·相互制弱·相互促進의 關係가 있으므로, 本臟自體의 屬性과 관련된 病變에는 本臟에 작용하는 藥物을 포함시켰고 아울러 他 臟腑에 작용하는

만을 사용하지 않고 他 臟腑에서 病變이 생겨 轉變되었는지 標와 本의 診斷과 아울러 藥物 調劑 시에 他臟과 本臟 藥物로 區分하여서 精確한 투여를 해야한다고 思料된다.

V. 結論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肝臟에 작용하는 藥物에 관하여 文獻的으로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本臟에 작용하는 藥物은 木瓜·阿膠·川芎·沙蔘·薏苡仁·五加皮·酸棗仁·胡黃連·草龍膽·靑皮·芍藥·柴胡·前胡·靑黛·橘葉·犀角·萎蕤·款冬花·吳茱萸·秦皮·鱉甲·菊花·草決明·車前子·三稜·蕪荑·木香·肉桂·陳皮으로 29종이다.

2. 他臟에 작용하는 藥物은 黃芪·人蔘·芡實·半夏·肉苳蔻·檳榔·萆撥으로 7종이다.

3. 他臟에 작용하여 肝臟에 影響을 미치는 藥物의 分析은 다음과 같았다.

檳榔은 脾氣入肝한 症狀을 치료한다.

萆撥·半夏·芡實·肉苳蔻는 脾冷入肝한 症狀을 치료한다.

191) 李梴,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 권 p.436
 192) 李梴,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 권 p.434
 193) 조현영, 통속한의학원론, 서울, 학원사, 1999, p.136
 194)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p.313

人蔘黃芪는 脾虛入肝한 症狀을 치료한다.

參考文獻

1. 李梴, 國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1, I·II권
2. 黃度淵, 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94
3.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高文社, 1988,
4. 원광대학교 제21기, 本草求真, 서울, 木과 水, 1999
5. 허준, 대역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6. 龔延賢, (국역)萬病回春, 서울, 癸丑文化社, 1975
7.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9
8. 韓醫科大學 方劑學教授 共編著, 方劑學(改正增補版), 서울, 永林社, 1999
9.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國書杏, 1994
10. 素問研究集成,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2001
11. 辛民教, 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7
12. 南京中醫學院, 完역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1997, 전10권
13. 新文豐出版公司, 中藥大辭典, 新文豐出版公司, 北京, 1971 上·中·下권
14. 金完熙 催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6
15. 조현영, 통속한의학원론, 서울, 학원사, 1999
16. 黃帝內經 素門, 서울, 成輔社, 1994,
17. 申天浩, 問答式 한의학개론, 서울, 전통의학연구소, 1993
18.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서울, 정담, 1998
19. 金善熙, 漢藥臨床應用, 서울, 전통의학연구소, 1993